



## 제약/바이오 Issue Comment

제약/바이오 김정현 3771-9351  
[jh.kim@iprovest.com](mailto:jh.kim@iprovest.com)

### [Issue Brief] 미국 제약바이오 업종을 봐야 하는 이유

- 6월 22일 이후 나스닥 헬스케어 업종(NBI +10.9%)은 나스닥(+5.3%) 대비 Outperform 흐름 이어져
- 나스닥 헬스케어 업종 반등 배경은 1) 쏫 커버 2) 빅파마의 M&A 논의 본격화 등 3) 오미크론 신규 변이 4) Recession에 자유로운 업종 5) 금리 단기 하락 등
- 이 같은 흐름은 코스닥으로도 이어져. 6월 23일 저점 이후 코스닥 제약 지수는 11.4% 상승하며 코스닥 +7.3% 대비 Outperform 확인
- 당분간 업종 반등 흐름은 이어질 예정. 현재 미국 중소형 바이오 신약 Tech에대한 M&A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쏫 커버 수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.

- 6/22일 미국 증시는 저점 형성 후 나스닥 지수는 5.3% 상승한 상황. 주목할 점은 NBI나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ETF 등이 대부분 10% 이상 상승하며 전체 지수 대비 Outperform 하고 있는 상황

- 이 같은 미국 헬스케어 업종 반등 배경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. 우선 1) 쏫 커버 2) 빅파마의 M&A 논의 본격화 등 3) 오미크론 신규 변이 4) Recession에 자유로운 업종 5) 금리 단기 하락 등등

- 전체 지수 대비 미국 헬스케어 업종의 Outperform 흐름은 하반기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. 전염병 확산이나 금리와 같은 불확실한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M&A를 고려한 쏫 커버 매수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

- 22년 상반기 위축된 M&A 환경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는 지연되었던 M&A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어. 6월 17일 처음 보도되었던 MSD와 Seagen의 합병논의는 최근 전체 딜 규모 400억\$에 합의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

-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빅파마 대표들이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. MSD의 CEO Rob Davis가 지난 4월 실적컨퍼런스콜에서 Bio-Tech들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다고 밝혔고 Novartis의 CEO Vas Narasimhan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지만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. BMS의 CEO인 Giovanni Caforio도 1분기 실적 컨콜에서 M&A는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밝히기도.

- 빅파마의 중소형 Bio-Tech 인수합병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 관심사 중 하나. 시장가 대비 30% 이상의 프리미엄이 인정될 경우 지난 1-2년 간 헬스케어 업종을 향해 있던 쏫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

- 또한 가시적인 M&A 딜들이 공개되기 이전이라도 7월에 예정된 2Q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빅파마 CEO 들의 1Q와는 다소 상이한 M&A 관련 언급들이 이어질 경우 이는 쏫 커버 물량을 회수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될 것

- 한국 제약바이오 업종의 Up-Cycle은 크게 2015년, 2017년, 2020년 3차례 확인. 나스닥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는 한국 헬스케어 업종의 Up-Cycle 촉매제 중 하나. 업종에 대한 투자 관심을 환기하고 가치 평가의 비교 기준을 높여주기 때문

- 또한 글로벌 M&A는 산업의 투자 매력 관점을 넘어서 특정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. Botox로 알려져 있는 Allergan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논의되던 인수합병 딜이 2015년 3월 Actavis와의 합병으로 종결된 바 있어. 차세대 특신 제형으로 평가받던 액상형을 Allergan으로 기술이전했던 메디톡스의 주가도 그 동안 4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해

- 제약바이오 업종 Top Picks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, 대웅제약을 추천. 중소형 기업 중에서는 빠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플러스와 3분기 중간 임상 결과 발표가 기대되는 앰클론, 하반기 추가적인 기술이전이 기대되는 에이비엘바이오 등을 추천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\_2022.06.30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7.5	0.0	2.5	0.0

[ 업종 투자의견 ]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[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]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  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 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